

〈옥상의 민들레꽃〉 연구*

명 형 대**

차 례

- | | |
|--------------------------|---------------------|
| I. 서론 | III. 근대화와 허위의식 |
| II. 현실비판의 서사전략 | 1. 근대화와 궁전아파트의 세계 |
| 1. ‘주장’과 ‘예증’의 작품 구조 | 2. 세속화된 세계의 세속화된 인물 |
| 2. 어린이의 회로를 통하여 어른말로 말하기 | IV. 민들레꽃의 휴머니티와 사랑 |
| | V. 결론 |

I. 서론

〈옥상의 민들레꽃〉은 동화의 형식을 빈 ‘소설’로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간명한 작품이다.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수식어 붙은 이 소설은 19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야기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의 물질 지향적 배금주의 풍조가 아이의 시각으로 과장되게 노출된다. 경제 성장을 당면한 가치의 정점으로 하는 1970년대 개발독재 사회는 사람들의 의식에 전통적 가치의 이완과 함께 배금주의를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경남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 소설은 근대 산업화시대의 도래로 우리 사회가 전통적 윤리와 관습, 미풍양속을 지속시켜나가기보다 속물근성과 허위의식, 이기주의와 배금주의를 쫓아가는 의식을 문제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¹⁾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인의 전통적 심성이 물질문명과 맞부딪치면서 일으키는 변화와 그로부터 야기되는 세속적 욕망을 위트와 과장과 반어적인 우회(修辭)로써 비판한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이자 시대 변화를 꿰뚫어보는 작가의 비판정신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런데 작가는 이 소설을 가리켜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소설로 분류되고 있는 <옥상의 민들레꽃>을, 단행본 『속삭임』에서는 편이 거듭됨에도 굳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²⁾ 그렇다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어른을 위한’이란 한정어와 소위 ‘동화’의 갈래적 특성이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는 것일까. 작가의 의도가 강하게 묻어나는 작품일수록 작가와 화자와의 내적 거리는 좁아진다. 그렇다면 작가의 이러한 의도가 이 소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아이-화자의 발언’으로서의 현실비판을 주제로 하는 이 소설에서 굳이 ‘동화’라는 갈래어를 붙여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
- 1) 박완서의 작품세계는 많은 논자들에 의해 첫째로, <옥상의 민들레꽃>에서처럼 배금주의에 젖어 있는 속물근성의 소시민적 인생관과 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 특히 중산층에 대한 비판을 다룬 것, 둘째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과 그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 셋째로 여성문제를 주제로 다룬 작품들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광훈, 『소시민적 삶과 일상의 뒷』, 『박완서론』(삼인행, 1991),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 『작가세계』(세계사, 1991. 봄), 김기숙, 『박완서 소설연구-현실반영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식 고찰』(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송경선, 『‘옥상의 민들레꽃’ 연구』(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등
- 2) 작가의 출판 서문까지 붙여 있는 단행본에 ‘어른을 위한 동화 『속삭임』’이라는 표제가 있다. 그리고 <옥상의 민들레꽃>은 1971년부터 1998년까지의 단편소설을 총망라한 『박완서 단편소설전집』(문학동네, 2006)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이는 <옥상의 민들레꽃>을 동화로 분류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것일까. 또 우리는 작가가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아이의 시각을 통하여 어떻게 거리를 두고,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궁전아파트'라는 공간의 집단적 주체와 그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연구 대상의 작품은 <옥상의 민들레꽃>”³⁾을 중심으로 하되, ‘어른을 위한 동화’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른을 위한 동화’ 『속삭임』에 실려 있는 나머지 10편과 기존의 박완서 문학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현실비판의 서사전략

1. ‘주장’과 ‘예증’의 작품 구조

텍스트의 첫째 부분에서는 이야기의 기본 상황(a)이 제시되고, 나머지 둘째, 셋째 부분에서는 전개의 핵심이 되는 논리적 구조의 주장(A)과 예증(B)의 부분으로 짜져 있다. 기본 사항은 전체 2/24쪽 분량⁴⁾으로서 궁전아파트에 할머니가 투신자살하였다는 상황의 제시이다. 둘째 부분의 ‘주장’은 아파트 할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입주자들의 대책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대안과 그 대안의 하나로서 화자 나가 내세우려는 ‘민들레꽃 심기’ 자살 방지책이다. 그러나 나는 어른들의 제지로 의견을 채 꺼내

3) <옥상의 민들레꽃>(1980)은 제7차 교육과정(2001년)의 시행에 따라 개편된 중학교 국어교과서(중학 국어 1-1)에 실린 작품으로써 이 이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작품에 대한 논의들은 교육현장의 수업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본은 “어른을 위한 동화, 『속삭임』”(샘터사, 1993. 11, 3쇄)에 실린 <옥상의 민들레꽃>이다. 작품 인용은 괄호 속에 쪽수만 적는다.

4) 총 26쪽 분량 중 4쪽(삽화 1쪽 포함, 문장만의 분량은 24쪽 중 2쪽)이 이야기의 근원상황이다. 26쪽 중 제1부가 15.1/2쪽(삽화 1쪽 포함), 제2부가 6.1/2쪽 분량이다. 문장 분량 총 24쪽 중 <근원상황 2쪽 / 제1부 15.1/2쪽 / 제2부 6.1/2쪽>.

보지도 못하고 회의장을 쫓겨난다. 따라서 셋째 부분의 ‘예증’은 회의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 나 혼자 수화자를 향해 말하는 고백적 진술로써, 회의장에서 말하지 못한 자신의 주장을 체험적 사실로서 증명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후반부⁵⁾는 전반부의 기지에 찬 잠언적 성격의 주장에 대한 논증이자 동시에 해명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⁶⁾

a. 이야기의 근원 상황 : 궁전아파트 사람들 스스로가 의당 그들이 행복하다고 믿고 있던 그 아파트에서 벌써 두 사람 째 할머니 자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의 진술이다.

A.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책회의(對策會議) : 나는 어머니를 따라 궁전아파트 입주자들의 ‘할머니 투신자살 방지 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어른들의 ‘주장들’과 ‘토론’ 장면을 지켜보다가 자살 방지를 위한 나의 의견을 말하려다가 결국은 회의장에서 쫓겨난다.⁷⁾

B. 화자의 주장에 대한 예증(例證) : 어머니와 함께 회의장을 쫓겨 나온 나는 회의장에서 말하려던 나의 자살 방지책-옥상에 민들레를 심는 일-이 틀림이 없이 할머니 자살을 막을 수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수화자(narratee)⁸⁾에게 그 ‘체험적 사실’을 이야기한다.

전반부(A)에서 나는 궁전아파트 사람들의 회의를 지켜보면서, 그 관찰한 바를 객관적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회의석상에서

5) 주장과 예증이라는 논의의 성격상 텍스트의 둘째 부분을 ‘전반부’, 셋째 부분을 ‘후반부’로 따로 이름하여 다루기로 한다.

6) 이선미, 『소외체험을 드러내는 감각적 내면묘사와 지적 서술태도의 공존-박완서의 인물묘사에 관한 시론』, 『박완서 문학 길찾기』(이경호, 권명아 엮음, 세계사, 2000.), 205-206쪽.

7) 서사의 기본 상황을 제외한 전반부와 후반부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획이 되며, 이야기의 내용으로도 명확한 구별이 가능하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그 경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엄마와 나를 선두로 여러 엄마들이 회의장을 물러났습니다.” /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113쪽) 인용문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회의장’과 혼자 회상에 잠기게 되는 자신의 ‘집’으로 시공간이 변별된다.

8) 리먼 케넌, 『소설의 시학』(최상규 역, 문학과지성사, 1985), 129쪽.

의견을 개진하는 인물들의 발화는 직접화법으로 서술되지만, 발언에 대한 짧은 논평이나 발언자와 회중들의 행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화자나 의 진술은 과장과 비판적 어조로 즉 서술적 자아의 반영으로 서술된다. 후반부(B)는 화자 나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실을 회상하여 일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로 수화자에게 혼자 보고하는 방식⁹⁾으로 서술한다.

아래의 표는 이야기의 근원 상황을 제외한 전·후반부(A, B)의 관계이다.

구 분	전 반 부(A)	후 반 부(B)
서술 시점	일인칭 관찰 중심	일인칭 주인공의 보고
서술양상(화법)	직접화법 중심 / 일인칭 주석적 서술	독백적 보고 서술
서술 대상	궁전아파트 어른들의 자살 방지 대책 회의	자살을 시도하였던 나가 자살을 앓게 된 체험적 사실
시간 배경	회의의 시작부터 회의장 퇴장 때까지(1차적 이야기의 시간)	회상하는 현재 나가 더 어렸을 과거(5, 6세) 어떤 어버이날
공간 배경	회의장(궁전아파트 사장님 댁)	현재(나의 집-궁전아파트) 과거(궁전아파트의 옥상)
서술비율 (총24쪽)	15.1/2쪽	6.1/2쪽

전반부의 서술방식은 발언자들의 직접화법의 발화보다 화자의 사실 전달의 어조가 과장과 위트와 풍자로써 어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수화자를 향한 화자의 발신이 아이-화자의 어조이기보다 어른들의 코드에 맞는 어른들의 화법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강한 풍자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서술전략은 어른들의 논의가 궁극적으로는 할머니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값이 떨어

9) 폴 헤르나디, 『장르론』(김준오역, 문장사, 1983.), 91-92쪽. 텍스트의 후반부(B)에서 박완서 소설의 특징인 말하기 곧 ‘보고적 화법’(telling)의 기술이 계속된다.

지는 것을 염려하여 이를 막기 위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회의 도중에 나는 세 차례나 자신의 의견을 어른들에게 말하고자 손을 들기도 하며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서려 시도하지만, 나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겨를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회의장을 쫓겨나고 만다.¹⁰⁾ 전반부의 화자 나와 독자 사이의 소통 과정에서 나의 눈에 비춰진 어른들의 의식세계가 과장과 비판적 어조로 진술된다.

후반부의 핵심 모티프는 민들레꽃이다. 상징적으로는 민들레꽃이 자살을 막아 살아나게 할 수는 있지만, 쇠창살이나 자물쇠가 그렇듯이 할머니의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들레꽃의 환유는 내가 자살하려고 하였던 이유의 해명으로 시작된다. 나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나가 대여섯 살, 어버이날 때, 부모님은 누나와 형이 준 값비싼 선물만 받고, 내가 만든 종이꽃은 아예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엄마가 나를 실수로 낳았고 그것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엄마의 전화 말을 우연히 들어버렸던 때문이다. 충격을 받은 나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고, 밤이 되길 기다려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려 하였던 것이다.

둥근 달이 하늘 한가운데 와서 옥상을 대낮같이 비춰 주었습니다. ... 그 때 나는 민들레꽃을 보았습니다. 옥상은 시멘트로 뽀뽀하게 발라 놓아 흙이라곤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 바람을 탄 민들레 씨앗들은 시멘트로 포장된 딱딱한 땅을 만나 짝을 튀우지도 못하고 죽어 버렸으련만, 단 하나의 민들레 씨앗은 웅색하나마 흙을 만난 것입니다.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

10) 첫 번째는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자 “저요, 저요”를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엄마한테 붙잡히고(101), 두 번째로는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민들레꽃이라는 걸” 말하려고 엄마의 품을 벗어나려고 한다(104). 세 번째로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지만 어른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112) 마침내는 쫓겨나가게 된다.

지갑 뿌리를 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 하던 것이 큰 잘못같이 생각되었습니다(118).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살아난 민들레꽃의 그 질긴 생명력이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로 죽으려 하였던 나에게 이를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마침내는 나의 자살을 막은 것이다. 이것이 궁전아파트 어른들이 쇠창살과 자물쇠를 자살방지책으로 내놓은 것에 대하여, 내가 민들레꽃을 자살 방지책으로 내놓은 이유다.

옥상에 민들레꽃을 심자는 나의 자살 방지책은 돌연하고 재기에 찬 위트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주장은 전반부의 문제, 곧 할머니가 왜 죽게 되었는가, 어떻게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할 해명을 필요로 한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자살을 결심한 나를 살아나게 한 것이 ‘옥상에 핀 민들레꽃’이듯이 ‘옥상에 민들레를 심는 일’이 곧 할머니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내가 죽으려고 한 것은 가족들이 나를 따돌리고 심지어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까닭이고, 또 그 일로 절망한 내가 자살을 감행하려다가 달밤 옥상 위에 피어있는 노란 민들레꽃을 보고 되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증’은 나의 주장을 해명하고 또 그것이 가진 세계와의 갈등을 내적 독백으로 서술하는 것은 풍자의 우회적 성격 때문이다. 즉 나의 체험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직관이어서 서정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반부의 서술은 전반부의 비판적 태도와는 달리 내가 확신하고 있는 자살 방지책을 체험적 사실로 ‘예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들레꽃 심기’는 자살의 원인을 알아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죽고 싶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서 나의 되살게 된 자살 체험이 특수한 개인적 경험이므로 이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보편적 구제의 원리가 될 수 없는, 논리적 구조

를 취하고 있음에도, 논리성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작가가 굳이 이 소설을 동화로 내세우는 것은 회의, 주장, 증거를 들먹이면서도 심층적으로는 사건의 해결을 어린이의 단순성, 환상성, 비논리적인 동화적 속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힘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민들레꽃의 그 끈질긴 ‘생명현상’이라면, 내가 ‘민들레꽃’의 그것으로부터 받은 깨우침으로 할머니도 능히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¹¹⁾ 이것이 작가-화자-수화자-독자에 이르는 전략적인 표현의 논리적 소통 체계의 코드가 왜곡되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하다.

<옥상의 민들레꽃>에서 작가의 현실비판과 그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서사전략을 읽을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어른들의 주장과 그 논란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주장’을 연결고리로 하면서 나의 주장을 체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원을 실증적으로 증거, 예증하는, ‘주장-예증’의 논리적 관계로 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는 ‘주장’이 함의하고 있는 외경심과 그 재기발랄한 기지와 위트에 대한 논증이자 현실 비판과 극복을 위한 해명의 성격이 함께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어린이의 회로를 통하여 어른말로 말하기

문학도 궁극적으로는 텍스트를 매개로 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소통의 한 양식임은 보편화된 이야기다. 문학의 소통은 발신과 수신

11) 임옥희, 『이야기꾼 박완서의 삶의 지평 넓히기』, 『박완서 문학 길찾기』(이경호, 권명아 엮음, 세계사, 2000.), 143, 144쪽 참고. 민들레꽃으로 할머니의 자살을 방지한다는 나의 생각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 ‘놀랄만한’ 해결책으로서의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어른들의 이기심과 세속성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의 발상, 곧 재치, 놀라움 등의 비현실적 속성으로 이야기의 전환점을 삼은 것은 동화의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기능에 속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아이-화자의 어법이 이미 어른들의 담론 체계로 바뀐 논리적 소통으로 전략화되어 있다. 이는 곧 작가가 <옥상의 민들레꽃>을 동화의 속성에 기대고자한 까닭이지만 논리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호소통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텍스트(Text)를 작품(Work)으로 완성케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통신’과 구별되는 소통으로써, 발신자와 수신자가 상대 코드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된 가운데, 수신자가 발신자 코드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그러나 문학이 수신자의 창조적 읽기에 의하여 완성된다 할지라도 일차적으로는 수신자에 대한 발신자의 ‘말 걸기’(발신)에 의하여 소통이 시작된다. 즉 문학 텍스트는 작가가 어떠한 독자를 겨냥하여 말을 거는가에 따라 그에 맞는 메시지, 코드의 소통 회로가 정해진다.

‘어른을 위한 동화’ 『속삭임』은 ‘동화’를 모은 책이면서도, 그 수신자가 어른으로 되어있다.¹³⁾ 그러나 이 작품집의 서문에 쓰인 작가의 동화 쓰기에 대한 욕망, 동화에 대한 애착 등 일련의 진술은, 작가가 비록 <옥상의 민들레꽃>의 수신자를 어른(‘어른을 위한’)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잠재적으로는 어린이를 수신자로 설정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작가가 수신자를 어린이로 설정하였다는 혐의나, 발신-메시지-수신의 소통과정에서 겨냥한 잠재적 독자(어린이)와 실재 독서에서 드러난 현실 독자(불특정한 일반 독서 대중)와의 이중의 존재는 현실 비판의 우회적 기능과 동화의 서정성을 특성으로 드러내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서로 다른 두 연령층의 독자가 존재하는 독서 현상은 그 내용이나 형식 그리고 화자의 태도에서 몇 가지 변화를 나타내 보인다. 그 하나가 화자는 아이의 의식과 경험을 바탕¹⁴⁾으로 하되 그것을 아이의 담론이 아니라

12) 차봉희, 『수용미학』(문학과지성사, 1985.), 34쪽.

13) 책 제목의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한정어에서 수신자가 어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책 머리의 “읽으시는 분들을 위하여”라는 글에서는 수신자가 어린이인, 어린이들을 위한 글쓰기의 의도가, 즉 작가가 겨냥한 수신자가 어린이였음이 그 발언 속에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의도한 바와는 달리 “아이들이 거의 읽은 것 같지 않”았다는 사실, “어린이들이 혼자서 소화해내기엔 다소 버겁다는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된 독자층을 어른으로 재규정한 것은 아닌가 한다. 옥상의 민들레꽃은 이미 이전에 씌어진 것을 작품집 『속삭임』에 재편집하여 수록한 것은 실재독자를 다시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른들의 코드를 써서 어른들의 담론에 맞는, 어른 수신자에 대고 말하는 것이다. 어린이가 어른의 눈높이로 말한다는 것인데 어린이가 어른의 눈높이가 된다함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는 서술의 왜곡이며 이른바 독자를 목적인 데로 이끌기 위한 작가의 전략이다. 작가가 표현한 바 기표는 그것에 잠재된 기의를 읽어내려는 힘을 독자에게서 구하고 있다. 어른 담론으로서의 왜곡된 어린이 화자의 발화는 과장과 상투적 어법, 비유적 화법, 때로는 논리적, 반논리적 진술로써 궁전아파트의 어른들의 의식세계를 희화화한다.

할머니의 죽음에 놀라는 머느리를 가리켜 “악을 쓰는 소리”로, 아파트 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흥분하는 사람들을 “일제히 와글와글 들고일어나”는 모습으로, 쇠창살을 찢값에 사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밀치고 아우성을 치”는 과장된 행태로 서술한다. 특히 뚱뚱한 아줌마를 자주 희화적으로 서술된다.¹⁴⁾ 이러한 과장된 서술은 개인의 단순한 감정 표현 이상의 잠재적인 집단의 광기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집단으로서의 궁전아파트 사람들의 몰주체성과 세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없는 거 없이 갖추어 놓은 슈퍼마켓”이라든가 궁전아파트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담뱃’ 부러워하는 빛이 역력해진”다는 등의 과장과 강조의 거센 말씨, 단정적인 표현들은 궁전아파트(의 사람들)를 세속적 욕망의 대상으로, 부의 상징으로 만든다. 우리는 화자의 담론이 어린이답지 않게 논리적인 점을 몇 가지 더 들 수 있다. ‘주장’과 ‘예증’의

14) 소설 구조의 후반부는, 그것의 개연성 문제는 두고, 텍스트 의미구조로 보아 민들레꽃이 할머니의 자살을 막을 것이라는 사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화자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15) 뚱뚱한 아줌마가 “몸을 일으키는 데 하도 오래 걸리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영치기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엉덩이를 들어주었”다는 예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라든가,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칭찬의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등은 어린이 화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어른들의 부풀려 말하기의 상투적 어구들이다.

인과적 구조에 따른 논리전개가 그렇고 비유와 비교, 열거의 수사(修辭)가 그렇다. “이유”, “이치”, “따지듯이” 등 사유를 이끌어내는 논리적 어휘, “왜냐하면 … 때문입니다”라는 구문 등의 비유 함께 인과의 논리를 나타내는 말법들의 사용에서 발신과 수신이 소통이 어린이를 내세운 어른들의 담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작가가 잠재적으로 어린이 독자를 그 수신자로 설정하고 있었다¹⁶⁾는 진술은 ‘동화’라는 갈래상의 코드를 빌어쓰고 있었다는 말이며, 또 어른들의 코드를 빌어서 말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심층에는 여전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 즉 동화라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아이-화자가 인물로서 가진 상징적 의미는 어른에 대비되는 순진무구성이 그것이다. 궁전아파트를 열거, 수식하는 수사라든가 초등학교 어린이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나 당돌한 행위들이 그렇다. “… 슈퍼마켓도 있고, … 놀이터도 있고, … 공원도 있고, … 정자도 있고, … 푸른 연못도 있”다는 서술이 그렇고, “저요, 저요”를 외치며 선생님에게 조르는 태도의 진술이 모두, 과장과 아이의 천진성을 어른들의 이기적이고 물질적 탐욕에 찬 의식 세계에 대비케 하여 그 순수성을 중요한 감성적 세계로 드러낸다. 언어적 묘사의 과장이나 논리적인 수사로 어른의 회로에서 서술하는 가운데서도 시각적인 감각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록 어른의 회로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술의 주체는 어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동화의 동심으로써 어른의 세계를 반영해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동화의 보편적인 핵심 요소는 모험과 환상의 어린이 세계를 나타내고 어린이가 그 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¹⁷⁾ 이야기의 대상은

16) 작가는 책머리 ‘읽으시는 분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동화’를 쓰고 싶었으나 “동화로서는 실패작”이라는 말을 뒤집어보면 ‘동화로 썼다’는 말이 된다.

17) 척박한 시멘트 옥상에 핀 민들레꽃에서 자라나온 그 생명의 놀라움은 어린 내가 정말 이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보다 아이의 사물의 인식에 내재해

어른의 세계이며, 이를 어린이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고 어른들로 하여금 관습화한 자신의 일상의 세속성을 깊이, 새로이 인지하게 한 것이다. ‘어린이’라는 문화적 코드의 순진무구성은 어른들의 세속적 일상을 낮설게 하기에 그 효용성이 매우 크다. 동화로서 어린이에게는 실패라고 하였지만, 어른의 코드로 볼 때, 이러한 ‘의도된 순진성’을 가치 판단의 기본으로 한 이러한 전략은 소설 미학의 ‘충격’이 된다. 어린이가 어린이의 상상이나 의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어른 언어로 말하는 과장된 말하기는 어른들로 하여금 가책이나 자괴심을 불러일으켜 어른 독자들의 마음에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이다.¹⁸⁾

현실비판의 서사는 첫째로, 어른들의 코드에 등장한 왜곡된 어린이 화자의 전략적 서술¹⁹⁾은 대상을 과장하거나 과소화하고, 상투적 어귀를 써서, 또는 우의적 진술로써 대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여 표현하고, 둘째로 비판 풍자를 어린이의 순수성을 인간의 삶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본, 근간으로 삼게 하고, 셋째로 이를 비판 극복함으로써 삶의 진정성-생명 의식-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궁전아파트 사람들이 왜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지 근대화의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게 된 허위의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있는 순수직관, 또는 순수성이라는 의미로 읽어야 할 것이다.

18) 전반부가 권위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어른들의 경직된 언어가 서사 논리의 중심이라면, 후반부는 어린이 화자 자신의 세계로서 보다 단순하고 정감적인 언어들로 기술되어 있다. 전반부에서 아이 화자의 주석적이면서도 대화 중심의 관찰 자적 시점을, 후반부에서 자신을 초점화자로 하여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시각을 바꾸어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의 무후한 순수성으로, 즉 동화적 특성을 동원하여 감동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19) 김운찬은 움베르토 에코의 『낮설게 하기의 즐거움』(열린책들, 2003)의 “옴진이의 말”에서 아이러니가 이러한 수사학적 기법이라며 “기호는 거짓말(환상, 허구, 우회성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있”다고 말한다.

Ⅲ. 근대화와 허위의식

1. 근대화와 궁전아파트의 세계

1970년대의 근대 산업화의 정책에 따라 도시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형태로 대폭 건설되면서 일부 고급화한 아파트는 부를 누리는 특수 공간으로서 자리하였다.²⁰⁾ 도시 주거공간으로서의 아파트는 주거자로 하여금 동일 공간에서 사적 공간 영역을 확보케 하며 생활의 편리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집단화한 건물이다.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거형태로서만 아니라 아파트는 또 새로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까지 부상하게 되어 전통적 주거로서의 보금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욕망의 대상이 된다.²¹⁾ 특히 고소득 계층의 아파트는 고급화 대형화시켜 다른 계층에 대한 차별화와 그것으로 인한 품위 우월감 등의 계층의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궁전아파트는 그것이 갖추고 있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이상적인 행복의 공간으로서 모든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 궁전아파트 사람들은 이들은 스스로가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돕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궁전아파트는 겨울에도 창을 열고 살아야 할 정도로 난방이 잘 되고 온갖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누구나 보기만 하면 “담뱃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겉모양”을 하고 있다. 더구나 사람들은 가시적인 외양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궁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

20) 발레리 줄레조, 앞의 책. 134쪽.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 1976년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등 아파트 건립이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21) 발레리 줄레조, 『한국의 아파트 연구』(길혜연 역, 아연출판부, 2004.), 157. “아파트가 돈이다”라는 장을 설정하여 투기, 투자 등 경제성에 대하여 연구가 있다. 그리고 그 서두에 이렇게 쓰고 있다. “한국 (아파트)단지 운동의 범주 내에서 이 미지나 외형의 중요성이 아파트가 현금으로 계산되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잊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분명 부의 외형적 표시이다.”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궁전아파트의 소유는 그 자체가 사회적 부의 징표로서 행복하게 보이는 한 계층을 형성한다.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들 궁전아파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궁전아파트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궁전아파트에 산다는 사실 때문에도 그들에게는 그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된다.

궁전아파트가 표상하는 행복, 삶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오로지 가시적이며 물질적인 척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규정할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식한 것을 이상적인 행복으로 안다. 물질적 행복, 즉 궁전아파트 사람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궁전아파트 사람들의 행복은 궁전아파트 밖의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즉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 된 것이다. 따라서 궁전아파트 사람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에 주어져 있다고 믿는다.

“우리 궁전 아파트의 특징은 여름엔 창문을 꼭꼭 닫고 살다가 겨울엔 활짝 열어 놓고 사는 건데 겨울에 창이 닫혀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우리 아파트의 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아파트 값과도 상관이 있는 문제입니다만.....”

궁전아파트 사람들은 아파트의 창을 열고 닫는 일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맞추어서, 얼마나 더 호화로운 아파트이며 그곳의 삶이 행복하게 바라보일 것인가에 지향점을 두고 산다. 그것은 명목상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시장경제의 교환 원리에 따른 일이기도 하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의 소유에 삶의 가치, 허위의 욕망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가시적인 물질, 즉 부의 축적에 있다. 그들은 난방이 잘된 그들만의 궁전아파트에서 겨울에도 창을 활짝 열고 금력을 과시하며 사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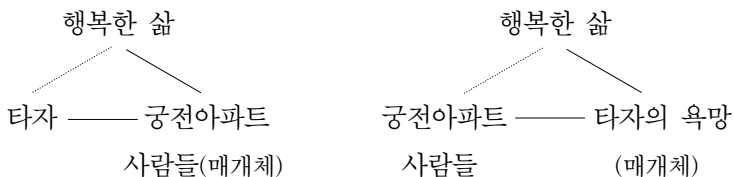
서 우월감과 행복을 느끼며 산다.²²⁾ 그러나 이들의 내적 세계는 감추고 있는 자살 사건과 똥값이 될지도 모을 집값으로 불안하기만 하다. 시각적 사물인식의 물신숭배는, 삶의 진정성을 오히려 감추게 되고, 겉모습만을 위하여 치장하는 타락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통을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부추기는 일상의 정치적 구호가 물질에 행복의 척도를 두어줄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을 의식화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궁전아파트라는 공간으로 표상되는 허위와 위선의 삶의 세계다.

한편, 궁전아파트 사람들은 물신숭배의 가치나 그것에 대한 믿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머니의 자살이 왜 일어났는가를 깨닫지 못한다. 할머니가 살아온 전통적 삶의 방식을 현실에서도 그대로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나의 부모도 정신적인 것의 가치에 대하여서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이다. 내 부모는 어버이날을 밤새 정성으로 만든 나의 꽃선물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대신에 돈으로 산 누이들의 꽃을 달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주거형태, 곧 궁전아파트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을 물질숭배자로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그들이 욕망하는 행복이란 물질에 의하여, 물질의 가시적인 외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선-욕망에 의하여 평가된다. 따라서 행복은 그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매어 있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자신의 내부에서 끌어내지 못한다. 욕망을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에 간혀 주체적인 삶의 진정성을 상실한 채, 허위의식에 빠져 있다.²³⁾

22) 베블렌은 『유한 계급론』(김성균 역, 도서출판 우물이 있는 집, 2005.)에서 가진 자들이 명성과 품위를 위하여 스스로를 부자로 보이게 하려는 ‘과시용’, ‘증명용’ 소비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23)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김치수·송의경 역, 한길사, 2001.), 44쪽. 지라르는 삼각형의 욕망을 스탕달의 말로 설명한다. 모방의 형식을 허영심이라 하고, “허영심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내부에서 끌어내지 못한다.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다.”고 쓰고 있다.(지라르, 같은 책,



궁전아파트 사람들은 궁전아파트 밖의 사람(타자)들이 그들의 풍요로운 삶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행복,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누리기를 욕망한다. 스스로가 모색하여 찾는 삶의 진정성이 아니라 타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알아주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스스로가 행복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궁전아파트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물질주의 의식에 함몰되어, 즉 타자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욕망을 욕망하는 가짜 욕망 속에서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내밀하게 타자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내면적 간접화 양상을 보인다. 타자의 욕망 또한 궁전아파트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불안을 알지 못한 채 화려한 외부의 모습만으로 그들을 모방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이 경쟁관계에 있고 또 사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욕망의 민들레꽃>은 그들을 ‘궁전’이라는 기표로써 특수 집단화함으로써 타자와의 심리적 경계가 부각되고 부자와 빈자의 계층의 차이가 갈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소설은 1970년대에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물신숭배의 사회적 집단 의식과 함께 특히 소수의 부유층이 누리고 있던 허위의식에 강한 비판과 풍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전아파트는 1970년대 국가의 근대 공업화 정책과 함께 급성장한 도

45쪽)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동서문학사, 1991.), 195-199쪽.

시화²⁴⁾로 말미암아 형성된 아파트 중심의 주택정책,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의식변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유층 아파트와 이들 부유층의 과시적 금력의 소비생활 등 비인간화 한 근대 도시 공간의 부정적 징후를 비판 풍자하고 있다.²⁵⁾

2. 세속화된 세계의 세속화된 인물

궁전아파트에 거주하는 계층의 속성을 회의에 참석한 거주자들의 신분과 그들의 언행을 통하여 궁전아파트로 상징화된 물질적 의식세계를 볼 수 있다. 70평 두 채를 하나로 터서 사는 사장, 철물공장을 가진 사장 부인, 노교수 그리고 할머니 방에까지 호화로운 장롱이며 전축 비단옷 등 온갖 기물을 갖추어 둔 물질적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는 집단이다.²⁶⁾

이들 중산 부유층의 변화된 의식 세계는 물질적 가치를 행복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들의 물질 중심의 세속성은 할머니의 자살 방지 대책 회의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의 권위의식과 명분론 그리고 배금의식은 회의장의 언행에서 과장과 풍자 그리고 아이러니로써 비판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사회(司會)를 보는 사장은 회장으로서의 권한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하며, 명함에 버젓이 새길 수 있는 대책회의의 작명에도 많은 시간을 보낸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회의의 이러한 현상은 궁전아파트의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할머니의 자살이 왜 일어나며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문제는 돈 채, 아파트의

24) 발레리 줄레조, 앞의 책, 51-52쪽.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공표되고 70년 중반을 접어들면서 부유층을 겨냥한 호화맨션 단지가 조성되어 아파트 열기가 고조되었다.

25) 박완서가 다루고 있는 소설의 주제들 중의 하나인 소시민적 속물근성과 배금주의에 대한 비판은 도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

26) “...저의 어머니 방 냉장고는 늘 그분이 즐기시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 드렸고, 옷장엔 사시사철 충분이 갈아입을 수 있는 비단옷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8)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을 막아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베란다 창살을 달아야한다는 등의 논의로 말 물꼬를 이끌어가는 일이 생긴다.

회의 장면을 지켜보면서 화자가 가장 잦은 빈도로 회화화하고 있는 인물은 뚱뚱한 아줌마이다. 뚱뚱한 아줌마는 할머니를 모시는 일이 골칫거리라 생각하지만, 할머니의 자살을 막는 일이 곧 아파트 값의 폭락을 막는 일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나선다. 뚱뚱한 아줌마는 할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베란다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또 이것이 부결되자 자물쇠를 설치하자는 안을 내놓는다. 그녀가 제시하는 쇠창살이나 자물쇠는 두 가지 다 남편의 회사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뚱뚱한 아줌마는 할머니의 자살 문제에서까지도 얼마나 이기적이며 물욕에 차 있는가를 유감없이 나타내 보인다. 이 인물은 궁전아파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세속적이며 이기적이고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다.²⁷⁾ 화자는 텍스트 여러 곳에서 뚱뚱한 아줌마의 외양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회화화한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물질적이고 탐욕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비판,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사장과 뚱뚱한 아줌마의 언행이 그 자체로서 권위주의자 또 물질주의자의 표상이라면 이와는 또 다른 성격의 배금주의자로서 젊은 아저씨와 노교수가 있다. 젊은 아저씨는 모임 이름을 ‘서로 돕기회’로 제안하지만 사람들은 궁전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구축하므로 도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킨다. 또 ‘사고수습대책협의회’라는 명칭이 제안되자, 그는 그것이 모임의 목적에 걸맞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사고만 나는 아파트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고만 나는 아파트라는

27) 197,80년대 아줌마, 복부인들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많은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배금주의는 잘 살기 운동과 함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인상"을 주면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회의 명칭을 그것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이렇게 문명된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의 제시를 통해 물신화된 세계로 전도된 가치관이 '젊은'이라는 기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달리말해 젊은이로 하여금 이러한 성격을 갖게 한 것은 근대화와 함께 인물의 가치관이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독자의 기대지평은 '노교수'라는 기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함몰되고 있는 세속적 물신주의에서는 한껏 벗어나 있기를 기대한다. 그는 천천히 침착하게 말을 꺼내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죽은 까닭을 베란다에 들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할, 회의의 방향까지 잡아주는 치밀함도 있다. 이러한 인물의 등장은 독자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이나 세속화된 무리의 비윤리적인 세계에 대한 공격까지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노교수도 사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말에 눈물까지 흘리는 할머니의 딸과 며느리를 보면서 자신의 화술과 논리에 흡족해 하는 등 교수로서의 명예와 품위, 권위적 모습에 젖어 있다. 그는 궁전아파트가 미관을 유지하고, 특권층으로서의 삶을 지속케 하기 위하여 베란다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자물쇠를 달자는 의견에 반대한다. 이러한 교수의 반대 역시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값'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물신주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노교수는 자살한 할머니의 딸과 며느리에게 사인(死因)을 추궁하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 분은 손자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하셨습니다.”

“그건 안 되죠. 안짱다리가 되니까.”

“그 분은 바느질을 좋아해서 뭐든지 깎고 싶어하셨어요. 특히 버선을 깎고 싶어하셨죠.”

“점점 더 어렵군요. 요새 버선이라니? 더군다나 기워서 신는 버선을 어데 가서 구하겠소?”

“그 분은 또 흙에다 뭘 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싶어하셔어요. 그 분은 시골에서 자란 분이거든요.”

“참으로 참으로 어려운 분이셨군요.”

교수님이 낙담을 합니다.

노교수는 도시화되고 산업화한 현대 사회에서 할머니의 옛 생활 방식에 대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다. 할머니가 혈육의 정을 느끼고 싶고, 노동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작가 박완서는 무비판적인 전통적 가치의 답습을 부인하면서, 할머니의 생활 방식이 현대 사회에 맞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한다.²⁸⁾ 궁극적으로 노교수는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어떤 방법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이 외에도 등장인물로 나의 가족이 있지만, 동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서사와는 구별되는 인물들이다. 소설 후반부에서 내가 알게 되는 부모의 모습은 세속적 성격을 가진 궁전아파트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가벼움과 물질만능적 세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궁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개개인의 특성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상징 공간으로서의 집단적 의식을 형성케 한다. 이들은 부를 소유한 중산 부유층으로 전통적인 인간적 가치보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28) 김현주, 『박완서의 에세이를 통해서 본 에세이 정신과 근대성』, 『박완서 문학 길 찾기』(이경호, 권명아 엮음, 세계사, 2000.), 153쪽. 박완서의 다른 동화 10편에서도 인간적인 것, 자연적인 것, 즉 사물의 진정성의 상실에 대한 거부가 중심적인 주제이다. 물론 이들 동화에서 근대 문명과 개발의 논리에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근대적 전통 세계의 고수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작가의 견해는 그의 수필문학에서 엿볼 수 있다. 김현주는 박완서의 에세이에서 “도덕을 회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사실, ‘효는 어차피 사라져 가는 정신에 부합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등의 작가의 도덕 윤리에 대한 입장을 읽어낸다.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대변한다. 곧 노인네를 지키는 일은 ‘꼴치거리’지만, 자살을 막아 “아파트 값의 최고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궁전아파트의 사장, 똥똥한 아줌마, 젊은 아저씨, 노교수, 죽은 할머니의 딸, 며느리까지도 모두가 물질주의에 빠져 휴머니즘적 전통적 가치를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시대의 것으로 생각한다.

궁전아파트 부유층의 경제 제일주의의 가치관, 명예와 권위에 대한 맹신, 우월의식과 상대적 박탈감, 속물근성, 기회주의적 속성, 가식적인 교양, 개성 없이 획일화된 일상 등의 풍조는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과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집단화한 허위의식이다. 젊은 아저씨와 노교수를 비롯한 궁전아파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들의 부와 행복이 진짜인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 이들은 허위의식에 빠져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알지 못한다. <옥상의 민들레꽃>에서 인물들의 허위의식은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자 동시에 부유층이라는 계층이 집단적으로 표출해 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의식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IV. 민들레꽃의 휴머니티와 사랑

<옥상의 민들레꽃>은 총체적으로는 세속화한 세대 비판과 풍자가 주조를 이룬다. 그러나 후반부의 나의 이야기, 곧 옥상에서 발견한 ‘민들레꽃’과 옥상에 ‘민들레꽃 심기’가 이 소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작가의 창작의도를 재확인하고자 한다.²⁹⁾

먼저, 민들레꽃이 함의하고 있는 시적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자. 어른

29) 전반부의 풍자와 후반부의 생명의식이 어떻게 의미상 어떻게 연결 조화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총체적 의미를 생성해낼 것인가가 이 소설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름하게 할 것이다.

들이 할머니의 자살을 막는 길은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일이다. 쇠창살이나 자물쇠는 차갑고 견고한 금속성 이미지를 함의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는 사람들 사이의 단절과 고독을 의미하며 인간 소외와 상실로서의 죽음의 세계를 뜻하는 물질문명의 비인간적 속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옥상에 핀 민들레꽃은 소외와 생명의식, 생의 외경, 삶의 진정성을 함의하고 있다. 옥상의 민들레꽃은 시간을 거슬러 나의 체험적 소외와 인접한 환유적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민들레꽃은 꽃의 생의 외경과 꽃피움의 생명의식이 은유의 축으로 추상화되어 환유와 은유가 함께 기능한다. 달밤에 핀 ‘민들레꽃’은 꽃이 주는 이미지는 아름다운 빛깔과 그 향기 그리고 옥상 시멘트의 그 척박한 자리에서 피워내는 생명력, 이러한 것들은 세상을 생의 외경으로 이끌어준다. 곧 모든 것의 근원적 가치인 ‘생명의식’으로 할머니를 죽지 않게 살아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인간화된 현대 사회의 문제는 척박한 토양을 딛고 일어서는 ‘생명사상’이며 생의 외경의 정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궁전아파트 사람들의 세속적 물질주의적 세계에서 어린이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의식이 화합과 조화로운 시적 삶의 세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옥상에 민들레꽃이 나의 개인적 체험으로는 구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할머니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민들레꽃은 보편적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으며, 죽고 싶어 하는 할머니의 소외감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생명 체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생기는 해결이나 반성이 아니고 극히 개인적이고 우연적이며 주관적 경험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머니가 원하는 옛 생활의 욕망,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를 모두 해결, 극복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은 개인적 정서적 의미가 함의된다. 사태의 해결, 이야기의 전환을 위한 경구나 기지,³⁰⁾ 특히 어린이의 등장

30) 이선미, 앞의 책, 205-206. 임옥희, 앞의 책, 143-144쪽 참고. 어린 화자의 생명현

과 동화적 속성의 비논리적인 환상이나 시적 함의들이 모두 서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결의 세계는 곧 ‘사랑’이라는 말로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궁전아파트는 1970년대 도시 중산층의 이기심과 부의 축적을 위한 욕망과 한편으로는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특히 노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시대의식의 변화를 표상한다. 개발독재의 공업화에 따른 도시화 정책은 주거공간으로 아파트 건립을 부추기고 더불어 생겨난 호화아파트는 부의 징표가 되기도 했다.³¹⁾

이 소설의 전반부는 궁전아파트 어른들의 물질숭배의 의식을 비판 풍자하는데 있다. 물질숭배 의식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가족, 특히 노인의 소외가 새로운 현실문제로 제기된다. 더구나 도시화로 새로이 생겨난 아파트 주거는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할머니의 자살까지 일으킨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궁전아파트’ 사람들이 내놓는 생각을 아이-화자의 시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짓의 과시적이고 물질 지향적인 가짜 행복에 젖어 있는가를 회화적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작가는 첫째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 둘째로 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소외, 셋째로 이러한 문제를 아이-화자의 시선을 빌어서 이를 다시 어른의 담론으로 비판, 서술하고 있다.

후반부는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체험과 민들레꽃을 보고 되살게 되는

상에 대한 외경심, 곧 작가가 경구나 잠언으로 이야기의 전환을 꾀함은 논리적으로 오히려 이야기를 뒤틀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설명의 필요가 서사를 단조롭게 하거나 개인적 정서의 서정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발레리 줄레조, 앞의 책, 2004쪽

생명의식이 중심내용이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로 말미암아 나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다. 죽으려 하였으나 달밤, 옥상에 핀 민들레꽃을 보고 외경에 찬 ‘생명의식’을 느껴 살고 싶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고 싶지 않게 된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한편 민들레꽃이면 할머니를 자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민들레꽃 심기’가 기능상 궁전아파트 어른들의 물질적 욕망의 과시적 행태를 전경화하면서도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할머니의 자살을 막을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할머니가 죽고 싶어 하는 원인으로서의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성이 없기 때문이다. 민들레꽃에서 깨치게 되는 생명현상의 인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들레꽃을 심음으로써 할머니의 자살을 방지, 곧 가족의 소외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나의 주장이자 이 소설의 주제는 정서적 의미가 함의된다. 어린이의 등장과 기지와 위트에 의한 해결의 요체가 가진 동화적 속성의 비논리적인 환상이나 시적 함의들이 서정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주제어 : 물질숭배, 수화자(narratee), 소통, 담론, 광기, 도시화, 세속성, 거짓욕망, 주거공간, 풍자.

참고문헌

-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서문학사, 1991. 195-199쪽.
- 김기숙, 「박완서 소설연구-현실반영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식 고찰」, 연
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김현주, 「박완서의 에세이를 통해서 본 에세이 정신과 근대성」, 『박완서
문학 길찾기』, 이경호, 권명아 엮음, 세계사, 2000. 153쪽.
-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어른을 위한 동화, 『속삭임』”, 샘터사,
1993. 11, 3쇄.
- 송경선, 「‘옥상의 민들레꽃’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이광훈, 「소시민적 삶과 일상의 뒷」, 『박완서론』, 삼인행, 1991.
- 임옥희, 「이야기꾼 박완서의 삶의 지평 넓히기」, 『박완서 문학 길찾기』,
이경호, 권명아 엮음, 세계사, 2000. 143-144쪽.
- 조혜정, 「박완서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 『작가세계』, 세계사,
1991. 봄.
-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34쪽.
- 발레리 줄레즈, 『한국의 아파트 연구』, 길혜연 역, 아연출판부, 2004. 157
쪽.
- 베블렌, 『유한 계급론』, 김성균 역, 도서출판 우물이 있는 집, 2005.
- 리먼 케년, 『소설의 시학』, 최상규 역, 문학과지성사, 1985, 129쪽.
- 폴 헤르나디, 『장르론』, 김준오역, 문장사, 1983. 91-92쪽.
-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 역, 한길사,
2001. 44쪽.

<Abstract>

A Study on *The Dandelion Flower on the Rooftop*

Myeong, Hyeong-Dae

‘Palace Apartment’ explores the changed consciousness of the 1970s which resulted from not only changes in family structure, especially the problems of the aged, but also middle class egoism and desire for the wealth.

The first half of this novel shows that materialism led to a new social problem, the alienation of old people. The worship of materialism is satirized through the viewpoint of the child narrator. Author, Park Wan-seo vividly portrays the attempt of the suicide of the Grandmother as a maladjustment to the alienation of the family and city life. Through the adult’s discourse, which is seen from the viewpoint of the child narrator, the novel thoroughly criticises the materialism which dominates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resulting family alienation.

The second half of the novel includes experiences of family alienation and symbolically represents the revived life consciousness as seeing the dandelion flower in bloom on the rooftop. The speaker ‘I’ does not want to live because he is alienated from his family due to the materialism which has affected his parents. The speaker ‘I’ understands why Grandmother did not want to live, and intends to kill himself. But after seeing *the dandelion flower on the rooftop*, the

speaker 'I' wants to live and experiences the feeling of 'life consciousness' that fills him with awe and respect. The speaker 'I' also thinks dandelion flowers will prevent Grandmother from the suicide attempt.

The speaker's suggestion for planting dandelion flowers on the rooftop cannot prevent the suicide of the Grandmother nor is the proposal the universal answer to solve the alienation problem.

However, the suggestion includes the speaker's emotional meaning because the illogical fantasies and poetic connotation which are shown in the novel keep the lyricism.

Key Words : materialism, narratee, communication, discourse,
madness, urbanization, secularity, residential space,
satire.